

10월 베트남 경제 및 관광 시장 동향

□ [베트남 정치경제 동향]

○ 베트남, 올해 소득세 수입 약 30조동 감소 전망...중소기업·개인사업자 감세 영향

- 베트남 정부는 영세·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 ~ 2027년 소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함. 연간 매출이 100억동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할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의 30%를 감면하며, 해당 정책은 2026년 8월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됨.
- 정부 추산에 따르면 '26년 개인소득세 예상 징수액은 약 203조 동으로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14.3% 감소한 수치임. 또한 고유가 상황에 따른 석유제품 환경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환경보호세 또한 정부 예상보다 약 26조 동 적게 걷히는 등 일부 세목이 정부 예상치를 밑도는 현상이 나타남.
- 이러한 감면 조치는 단기적으로 정부 세입을 줄이지만,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 영업 유지와 사업 확장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충하려는 취지임.

○ 하노이시, 저출산 대응 위해 35세 이전 2자녀 출산 여성에 400만동 지원

- 하노이시는 출산율 하락에 대응 및 출산 장려를 위해 35세 이전 두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 400만동(약 155달러)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함. 또한 법정 혼인 연령에 결혼하고 혼전 상담 및 건강검진을 받은 커플에게도 100만동을 지원할 계획임.
- 하노이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여성 1인당 2.11명에서 2025년 1.87명으로 감소함. 연간 출생아 수도 2025년 8만3,908명으로 줄었으며, 평균 초혼연령은 28.6세로 전국 평균인 28세보다 높아 만혼 및 출산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하노이시 인민의회는 2026년 10월 28일 인구 및 발전 관련 지원 기준을 담은 결의안을 승인했으며, 관련 정책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번 출산지원금은 정부의 최소 지원 기준인 200만동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 없이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할 계획임.
- 이와 함께 두 자녀 출산 실적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지역에도 3,000만~6,000만동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임. 이번 정책은 현금지원과 지역 단위 인센티브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는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강화 움직임으로 분석됨.

○ 호치민시 베트남국제금융센터, 첫 회원사 10곳 유치..27억 달러 투자 추진

- 호치민시 베트남국제금융센터(VIFC-HCMC)는 2026년 10월 28일 열린 '2026 추계 경제포럼'에서 첫 공식 회원사 10곳을 발표함. 참여 기업들은 금융·투자, 인프라, 교육, 에너지, 물류,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2027년까지 약 27억 달러를 조달·투자할 계획임.
- 주요 투자 계획으로는 사이공마리나IFC의 금융센터 인프라 개발을 위한 8억 1,600만 달러 조달, AG&P 베트남홀딩의 액화천연가스(LNG)·전력·데이터센터 분야 약 4억2,500만 달러 투자 등이 포함됨. 이퀘스트캐피털은 교육 인프라에 약 3억 2,500만 달러, 선킴캐피털IFC는 금융센터 내 인프라 개발에 약 2억7,500만 달러를 조달할 계획임.
- 이번 회원사 유치는 금융센터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넘어, 실제 투자 프로젝트와 국제 자본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됨. 호치민시는 향후 금융상품 개발과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확대하고, 금융기관 및 투자펀드 등을 유치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와 인허가 절차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임.
- 한편 호치민시는 글로벌금융센터지수(GFCI)에서 692점을 기록하며 세계 67위에 올랐고, 직전 평가보다 17계단 상승함. 금융센터의 제도적 기반과 투자 생태계가 확충될 경우 베트남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빈패스트, 2027년 말까지 호치민시서 자율주행 택시 200대 시범운행 추진

- 베트남 전기차 제조업체 빈패스트는 2027년 말까지 호치민시 켄저(Cần Giẽ)의 빈홈즈 그린 파라다이스(Vinhomes Green Paradise) 신도시에서 레벨4 자율주행 택시 200대의 시범운행을 추진함. 해당 계획은 관계 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하며, 현재 관련 기관과 안전기준 및 통제된 시험운행 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음.
- 레벨4 자율주행은 정해진 운행 구역과 조건 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 및 교통상황 대응을 수행하는 기술임. 빈패스트는 2026년 6월 엔비디아, 오토브레인즈와 협력해 동남아시아 시장용 자율주행 택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발표했으며, 차량용 컴퓨팅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계획임.
- 이번 사업은 베트남 내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미래형 교통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도로, 향후 운행 범위와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라 상용화 가능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다만 시범운행은 아직 승인 전 단계로, 구체적인 노선과 서비스 개시 시점 등은 확정되지 않음.

- 관광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향후 도시·휴양지 내 이동 편의를 높이고 관광 교통수단을 다변화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건너 지역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연계해 관광·숙박시설 간 이동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으나, 실제 관광객 대상 서비스 도입 여부는 향후 운행 계획과 관련 규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

□ [관광시장 동향]

○ 푸꾸옥, 올해 외국인 방문객 240만 명 유치 전망...전년 대비 33% 증가

- 베트남 남부 휴양지 푸꾸옥은 2026년 외국인 관광객 240만 명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25년보다 약 33% 증가한 규모로, 국제선 직항 노선 확대와 연말 관광 프로그램 강화 등이 방문객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안장성 관광당국에 따르면 푸꾸옥의 올해 1~9월 외국인 방문객은 19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했으며 연간 목표의 95%를 달성함. 같은 기간 관광 수입은 45조9,000억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7% 증가해 연간 목표를 이미 넘어섬.
- 관광객 증가 배경으로는 한국·대만·중앙아시아·동유럽 등 주요 시장과 연결되는 국제선 확충, 고급 리조트 및 관광 인프라 확대, 다양한 공연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꼽힘. 특히 2026~2027년 겨울 관광시즌을 앞두고 러시아발 직항 노선이 개설되는 등 유럽권 관광객 유치 기반도 확대되고 있음.

○ 베트남항공, 다낭-싱가포르 신규 취항...중부 베트남 관광 접근성 강화

- 베트남항공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다낭-싱가포르 직항 노선을 신규 운항할 예정임. 해당 노선은 에어버스 A321 기종으로 매일 왕복 1회 운항 예정임.
- 이번 노선 신설로 베트남항공의 베트남-싱가포르 노선 운항 횟수는 주당 왕복 42회로 확대됨. 기존 하노이-싱가포르 노선은 주 14회, 호치민시-싱가포르 노선은 주 21회 운항하고 있으며, 다낭 노선 주 7회가 추가되면서 베트남 중부 지역의 국제선 연결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 싱가포르는 베트남의 주요 외래객 유치 시장 중 하나로, 2026년 1~9월 베트남을 방문한 싱가포르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함. 다낭은 해변 휴양과 리조트 관광뿐 아니라 호이안, 미선 유적지, 후에 등 중부 지역의 문화·역사 관광지를 함께 방문하기에 유리한 거점으로 평가됨.
- 이번 직항 노선 개설은 싱가포르 관광객의 베트남 중부 지역 방문 편의를 높이고, 휴양·문화유산 관광을 결합한 여행상품 개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비엳젯항공, 11월 1일까지 국내외 에코 특가항공권 프로모션 진행

- 베트남 저비용항공사 비엳젯항공은 연말 여행 수요를 겨냥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내외 노선을 대상으로 특가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함. 에코클래스 항공권을 세금 및 수수료 제외 0등부터 판매하며, 항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음.
- 이번 프로모션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적용되며, 일부 성수기 및 특정 기간은 제외됨. 저렴한 항공권을 활용해 연말 휴가뿐 아니라 내년 여행까지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여행 수요를 유도하는 취지임.
- 비엳젯항공은 베트남 국내 관광지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선 네트워크도 확대하고 있음. 호치민-몰디브, 하노이-호치민-세부, 호치민-치앙마이, 하노이-알마티 및 프라하 등 다양한 노선을 통해 휴양과 문화체험을 결합한 여행 선택지를 넓히고 있음.
- 베트남 대표 저가 항공사의 항공권 할인과 노선 확대는 베트남인의 해외여행 비용 부담을 낮추고 여행 시기 및 목적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됨.

○ 베트남 롱탄신공항, 핵심 공사 인력난·대금 지급 지연으로 연내 개항 차질 우려

- 베트남 최대 규모 롱탄국제공항은 2026년 12월 상업운항 개시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나, 주요 시설의 공정 지연으로 일정 차질 우려가 제기됨. 베트남 건설부는 10월 20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진행 중인 12개 주요 공사 패키지 중 4개가 연내 완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지연 우려가 제기된 사업은 공항 내부 도로·기술 인프라, 여객터미널, 제1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주차장 등임. 여객터미널의 공사 진척률은 86.85%이며 전기·기계 설비 설치는 96.2% 수준이나, 전문 기술인력과 숙련공 부족으로 마무리 작업이 늦어지고 있음.
- 인력난 외에도 공사대금 지급 절차 지연과 건설자재 부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됨. 특히 공항 내부 도로 및 기술 인프라 공사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약 10만 톤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또한 여객터미널의 전력·급배수·공조·소방 등 주요 설비의 통합 시험도 일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작업이 필요하여 운영 준비에 부담을 주고 있음.
- 롱탄신공항 1단계 사업은 연간 여객 2,500만 명과 화물 120만 톤을 처리하도록 설계됐으며, 호치민시 동쪽 약 40km에 위치함. 공항 개항은 베트남 남부의 국제선

수용능력 확대와 관광객 이동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운항 개시 시점은 잔여 공사와 시험운영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기타]

- 올해 9월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1,76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하였음 중국인 관광객이 약 395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 관광객은 약 306만 명으로 2위를 유지하였음. 이어 러시아(약 113만 명), 대만(약 96만 명), 미국(약 75만 명), 캄보디아(약 69만 명), 일본(약 67만 명), 인도(약 67만 명) 순으로 나타남. 전년 동기 대비 주요 시장별 증가율은 러시아가 160.6%로 가장 높았으며, 필리핀(55.2%), 캄보디아(40.5%), 인도(33.0%)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 특히 유럽 지역 관광객은 약 29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0% 증가해 주요 권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아시아 관광객은 약 1,317만 명으로 전체의 약 74.5%를 차지하였음. 한편 9월 한 달간 외국인 관광객은 약 17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1%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11.3% 감소하였음. 입국 수단별로는 항공편 이용객이 약 1,471만 명으로 전체의 83.2%를 차지하였으며, 육로 입국객은 약 27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 증가해 항공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9월 방한 베트남객은 51,29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1~9월 누적 방한 베트남 관광객은 약 45.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6% 증가하였음. 이는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110.4% 회복한 수치임. 9월 들어 방한객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가을 시즌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임. 지사는 하반기에도 한국의 계절적 매력을 활용해 OTA 협력 프로모션, 여행사 공동 판촉 등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단풍·미식·K-콘텐츠 등 가을철 인기 콘텐츠와 연계한 상품을 홍보하며 방한 수요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자료출처 : VNexpress, VOV, Inside VINA, Asean Express, Vietnam News Agency 등 베트남 뉴스 및 한국 뉴스 종합